

광주 에너지기업, 베트남에 수출길 확대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

인셀(주) 등 광주 지역업체 15개사 참여

40만 달러 상당 수출 및 기술협력 MOU

광주시는 광주지역 에너지기업들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에 참여해 4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 홍보를 통해 베트남 수출길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호치민 SECC전시장에서 열린 베트남-한국 스마트전력에너지전(이하 '에너지전')에는 한국 베트남 기업 등 152개사가 참여하고, 18개국 2만여 명이 참관했다.

이번 에너지전에 참가한 인셀(주), 주이엔티, 주비에이에너지, 이디에스(주), 주그린정보시스템, 주엠텍정보기술, 주그리다에너지, 주노바스이지, 주

씨엔이에너지, 주에너지공조, 쿠준 테크(주)공간정보, 원광전력(주), 대호 전기(주), 주비온사이노베이터 등 지역 에너지기업 15개사는 기업 홍보와 수출상담 등을 진행했다.

시는 광주홍보관을 설치하고 에너지산업,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지역 에너지기업 제품과 BIXPO, SWEET 전시회 등을 홍보했다.

지역 기업 가운데 5개사는 베트남 현지기업 등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배터리 등의 수출 상담을 통해 40만 달러 상당의 수출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태양광발전과 연계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품과 기술에 대한 수출상담은 베트남 시장을 절차별 분석, 현지 전력수급에 맞게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사이공하이테크 파크(SHTP), 에너지협회(VEA)와 에너지기업의 기술협력과 수출 등을 위해 상호협력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편, 시는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기관과 협력해 왔다.

서은홍 기자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 양파 소비 촉진 홍보나서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가 지난 17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실시한 양파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를 마친 회원들이 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물 옆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회장 곽선희)는 지난 17일 광주송정역 일원에서 양파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회원사인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 소비자협의체운영,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산물 안전관리운영)가 함께 참여했으며, '양파 쑥쑥, 양파 많이아이드세요'란 구호를 외치며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는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와 광신지회가 함께 했으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시민과 여행객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같은 시간 광주세계수영대회 손님 및 탤레이버스킹이 열려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또한 광산구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양파의 영양성분을 설명하고 요리 리플렛이 담긴 장바구니를 전달하며 행사의 취지를 알렸다.

곽선희 회장은 "양파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참여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고 말했다.

한편 대한어머니회 광주연합회는 지난 9일 친환경 농산물 가치 소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사회 각분야에 관심을 갖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신민호 도의원 "전남도교육청 직급 인플레이션 심각"

제 살 도려내는 각오로 '혁신' 해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최근 전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직급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각했다.

신민호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직속 기관인 해남·영암 공공도서관등은 6

급 사서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는데, 목포·나주 공공도서관은 3급 부이사관이 관장을 맡고 있다"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 인력을 과잉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

원센터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학교에서 접수한 공문은 2508건이었는데 2019년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공문은 2458건이었고, 학교에서 생산한 공문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행정조직은 점점 비대해져 가고 학교업무 정상화는 아직

도 멀기만 하다"며, "학교의 가장 낫은 곳에서 학교 실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본정의 조직을 반으로 축소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인원을 전진 배치시키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탈피하여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아프지만 제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동구, 제1회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광주 동구가 지난 20일 전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청장배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가 주최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광주권역 최초로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단위 청년창업아이디어 경진 대회다.

동구는 지난 17일까지 '광주동구를 혁신할 창업아이디어를 찾아라'는 주제로 공개모집을 진행해 서울·경기·대전 등 전국에서 40여 팀의 참여 신청을 받았다.

서구,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현판식

광주 서구가 17일 서구공공도서관과 서창한옥은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7,8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정으로서 서구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공공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 치매친화 환경조성을 앞장서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사업은 도서관에 치매 관련 도서 및 자료를 비치해 읊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은 자료실내 치매관련 도서전용 공간을 별도로 마련, 치매 관련도서를 비치해 방문객들이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대응방법 등 치매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남구 청년들, 강소기업 텁방 청춘로드 떠난다

광주 남구는 관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소기업을 현장 탐방하는 '청춘로드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구는 19일 "청년들의 강소기업 현장 투어 프로그램인 '청춘로드 기업탐방'에 함께 할 관내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4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및 은평에 위치한 청년와락을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namguwara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마을만들기사업장 금융기관과 함께 가꾼다

광주 북구가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24일 지역사회 공헌을 희망하는 12개 금융기관 대표와 10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장 공동관리 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마을만들기사업장 공동관리 협약'은 2000년부터 조성된 마을만들기사업장의 시설이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북구 마을만들기사업장은 27개동 곳곳에 소공원, 화단, 쉼터, 벗밭 등 총 248개소가 조성돼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여가활동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북구는 협약에 참여한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광주은행 등 총 12개 금융기관·1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정기적인 환경정비, 조목재치, 시설보수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나갈 예정이다.

광산구, 선운지구에 교통사고·범죄 안심구역 조성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의 교통사고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9월부터 '안심 ZONE(존)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선운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2억 3,000만원을 들여 복합 안전시설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16일 광주시 '안전시범구역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

광산구가 설치할 주요시설은 보행인표 음성안내 보조 장치, 과속경보 장치, 노란신호등, 안전 펜스, 오렌지 세이프존, 방범용 CCTV, 안심벨 등이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과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같은 안전시설물을 꾸준히 설치하는 등 시민안전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년 539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정기자 (360122-2573511)
최후주소 :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105동 1605호
(봉계동, 로얄골드빌)
등록기준지 : 여수시 오천동 142

위 명정기자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주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7월 22일

공고인 : 윤동근.
주소 : 여수시 좌수영로 682-34, 105동 1605호(봉계동, 로얄골드빌)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7월 11일
공고기간 : 2019. 7. 22~ 2019. 9. 22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전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당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전라남도노사갈등조정체계설명회

호남신문 공익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약속해주세요